

작은 꽃

재속 프란치스코 성 디에고 형제회 소식지

사순절을 보내며

고 금숙 마르티나

주요 날짜:

- 5월 3일
성 필립보와
성 야고보 사도 축일
- 5월 7일
Soup Kitchen 봉사
- 5월 14일
성경모임
- 5월 28일
예수 승천 대축일
월례회
- 5월 31일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방문 축일

다음쪽:

성경모임

3월 월례회

이달의 작은 사람



만사의 인사도 으레 바쁘냐고 물어볼 만큼 늘 일속에 파묻혀 사는 바쁜 시대의 우리들은 일부러 큰 맘 먹고 버리지 않으면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기도하거나 조용히 명상 안에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기가 어렵다. 설사 시간이 허락된다 하더라도 하느님과의 만남을 위해 감각의 문을 닫고 소중한 침묵에 다가서기 보다는 가족을 위해서라고 핑계대며 하느님을 외면한 채 많은 시간을 써버리는 우리들. 지금까지 나 또한 그렇게 살고 있다. 해마다 사순절이면 버려야 할 헛것과 영적으로 더해야 할 새 것을 생각하고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에 엄살부리며 예수님 따르기에 소극적이었다.

몇 해전 몸서리 쳐질만큼 어둡고 긴 터널을 경험한 적이 있다. 일년 반이라는 세월은 나에게 길고도 어두운 질곡의 터널이었다. 지금껏 살면서 그렇게 아프고 절망적이고 고통스럽고 두려움뿐인 지옥은 없었던 것 같다. 하느님께서 철이 덜 든 나에게 고통을 겪는 법을 배워라 하셨던 것 같다. 나는 이제 조금 이나마 이웃의 고통을 함께 할 수 있고 나누는 것을 배웠다. 진정 그 고통이 얼마나 아픈지 절반은 이해할 수 있다. 성녀 잼마는 이렇게 말했다. “고통은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준다”라고. 그때 나는 아주 조금 침묵을 배웠다. 사실은 침묵을 처음으로 찾게 되었다는 것이 맞을 것이다. 세상의 소음이 영혼에 밀려들면 성령의 숨결을 느끼기 어렵다고 했다. 하느님을 생각하면서 의식적으로 하느님께서 현존하심을 느낄 수 있도록 침묵을 찾았었다. 그 침묵속에서 나는 뒤를 돌아보고 터널을 들어가기 전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했었는지 깨달았고 하느님께서 늘 나와 함께 계시면

서 죽을만큼 고통이 클 때는 붙잡아 일으켜 주시며 죽음 뒤에 부활이 있듯이 이 터널을 지나면 희망이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셨다.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깨달음과 동시에 막연히 프란치스코 성인을 동경만 하던 나에게 재속 프란치스코회에 입회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셨다.

사순절이 아니어도 예수님은 가진 것이 없으시지만 사순절이 되면 더욱 가난해 보이시는 예수님. 토마스 머튼은 이렇게 말한다. “언어로는 더 이상 갈 수 없는 길이 있다. 말을 멈춰야 비로서 보이는 실체들이 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면 할 말을 잊게 된다. 아니면 침묵없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침묵을 통해서 제공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지만 한가지 일이 끝났다 싶으면 또 해야 할 일이 생기고 거듭되는 만남의 약속을 위해 쉴새없이 계획표를 짜면서 우리들은 그것들을 놓치고 사는 것이다. 바쁜 일상 은 하느님과의 기회를 우리에게서 앗아가곤 할 뿐이다. “평생을 사는 동안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의 영원한 본질은 무엇인가를 발견하는데 우리가 실제로 소비하는 시간은 너무 적다”라는 구절을 어디에선가 읽은 적이 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세속적 유혹과 불안으로 인해 잃기 쉬운 신앙인의 자세를 사순기간의 삶을 통해서 되찾는 것이 아닐까? 세례때의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되찾아 바른 양심으로 살아가는 신앙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사순시기 아닐까? “사순시기는 자비의 샘이신 주님께 나아가는 내적 순례를 위한 특별한 시간입니다”라고 교황 베네딕도 16 세께서 사순시기 담화문 첫 줄에서 말씀하셨듯이 늘 비슷하게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의 삶일

성 디에고 형제회

월례회:
매달 4 번째 주일
오후 2 시 30 분
St. Columba 성당
3327 Glencolum Dr
San Diego, CA 92111

전화:
(858) 484-1943

E-MAIL:
oh_younghoon
@yahoo.com

‘작은꽃’에 관한 문의:

전화:
(858) 618-1164

E-MAIL:
kwon_youngghwan
@yahoo.com

지라도 끊임없는 노력으로 자신의 내면을 갈고 닦는 가운데 이웃과 관계를 진정한 사랑과 용서와 이해로 넓혀간다면 하루하루가 떳떳하고 자유로우며 새로운 기쁨으로 행복하지 않을까? 바쁘다는

성경모임 - 여호수아편

여호수아서는 기원전 1200 년 경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이끌고 정착하는 과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누어 가짐으로써 하느님과 계약에 충실하고 그 충실한 믿음으로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르게 살아가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느님께서 이 계약에 충실한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약속의 땅을 실현하셨습니다.

하느님과 약속! 여호수아 24 장 24 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다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하느님 야훼를 섬기고 그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한마음으로

핑계로 한쪽 깊이 밀쳐두었던 침묵을 다시 찾기위해 마크 수사님의 말씀처럼 하루에 십분이라도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혼자만의 여유를 가져야겠다고 새롭게 결심해 본다.



형제들 간의 나눔

나는 내 자신이 얼마나 하느님과 약속을 충실히 실천했는지 묵상하면서 하느님이 내게 주실 약속의 땅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만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김 베로니카 자매가 정리해 주셨습니다.

3월 월례회

지난달 26 일 월례회에서 시편 23 장 ‘주님은 나의 목자’를 주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목자이신 하느님에 관하여 생각하며, 사순기간 동안의 각자 체험과 어려운 시기에 이끌어 주시는 목자이신 하느님에 대한 나눔을 Mark 수사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계속하여 각 반별 양성, 공지사항 및 토의, 그리고 성무일도 저녁기도로 하루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이달의 작은 사람



이달의 작은 사람은 송 문헌 베드로 형제입니다. 베드로 사도(축일 6 월 29 일)가 본명 성인인신 형제님은 1982 년 부인 레지나 자매님과 결혼하셨고 두 아들을 두고 계십니다. 1983 년 미국 Ohio 로 유학오셨고, 졸업 후 직장 관계로 1988 년에 San Diego 로 이사오셨습니다. 1984 년 감리교에서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형제님은, 신자가 아니신 장모님께서 돌아가신 후 믿음이 없으면 구원이 없다는 교리로 레지나 자매가 어려움을 겪던 중 이웃의 인도를 받아 1993 년 성모 승천 대축일에 성당문을 두드리시게 됩니다. 역시 끈질긴 주위의 프란치스칸의 권유로 형제회와 인연을 맺으시게 되었고, 스스로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되어 많은 고민 끝에 2002 년 프란치스칸의 삶을 약속하십니다. 프란치스칸 영성 학원에서 많은 봉사를 하신 형제님은 바쁘고 쉽지 않은 환경에서도 착실히 기쁜 마음으로 양성에 임하는 여러 형제들의 모습에서 큰 감명을 받으셨다고 하십니다. 바쁜 일정을 핑계로 형제회 생활에 충실히 못한 자신의 모습이 형제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모르겠다시면서, 천천히지만 좀더 프란치스칸적 삶에 충신토록 노력하겠노라며, 모두들 잘 지켜봐 달라고 하십니다.



저희 형제회의 연례행사인 2006 년 피정 일정이 다음과 같이 정해졌습니다.

- 일시: 2006 년 9 월 23 일 오후 6 시부터 24 일 오후 4 시까지
- 장소: 테메쿨라 꽃동네, 37885 Hwy, 79S, Temecula, CA 92592